자리이타와 정법수호 서원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⑦ 삼대원(三大願)

이때 승만 부인은 다시 부처님 앞에서 세 가지 큰 원을 발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 진실한 서원으로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편안하고 안온하게 하려 하오니 이 선근으로써 일체 중생에게 정법의 지혜가 얻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큰 서원입니다. 제가 정법의 지혜를 얻은 후에는 싫증을 내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을 위하여 정법을 설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큰 서원입니다. 제가 정법을 거두어들이고는 몸과 목숨과 재산 등을 버려 정법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큰 서원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승만 부인의 이 서원을 수기하였다.

"세 가지 큰 서원은 모든 색(色)이 허공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살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서원이 모두 이 세 가지 큰 서원 속에 들어 있으니 이 세 가지 서원은 진실로 넓고 큰 것이다."

열 가지 서원을 발한 십대수장(十大受章)에 이어 다시 세 가지 큰 서원을 발하는 삼대원(三大願)장이 이어져 나온다.

〈승만경〉은 승만 부인의 서원을 중심으로 대승의 정법에 대한 의지를 일깨워 키워주는 법문이라 할 수 있다. 중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정법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되고 만다. 이른바 믿음(信)과 이해(解)는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다.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수행의 과정을 신(信), 해(解), 행(行), 증(證) 4 단계로 말하기도 한다. 정법이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나 곡해가 되어 사견(邪見)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승만경〉은 다른 경전보다 정법의 가치를 특별히 강조한다. 또 대승이라야 정법이 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삼대원 속에 항하의 모래 수만큼 많은 보살의 서원이 허공 속에 색(色)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다고 하였다. 첫 번째 원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은 이타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불교의 목적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원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승의 정신인 이타가 없이는 자리가 없다는 숨은 뜻이 들어 있다.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앞서는 현대사회는 남을 위한 진정한 이타심이 부족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세 번째 원에서 승만 부인은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맹세를 한다. 바른 법에 의해 중생의 삶이 더욱 성숙되고 가치가 더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빛이 있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정법의 지혜에 의해 무명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다. 보통 서원은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지극한 것을 말하나 서(誓)와 원(願)을 구분해 말하기도 한다. 현수(賢首, 643~712)의 〈화엄경탐현기〉에는 마음에 따라 구하는 뜻을 '원'이라 하고 지극한 정성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을 '서'라 한다 하였다. 또 〈승만경〉의 주석서인 길장(吉藏, 549~627)의 〈승만보굴(勝鬘寶窟)〉에는 "서와 원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다는 것은 지(智)와 혜(慧), 안(眼)과 목(目)의 관계와 같은 것을 말하고 다르다는 것은 갖가지 일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서'라 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기대하는 것을 '원'이라 한다."고 하였다. 길장은 〈승만경〉의 십대수(十大受)는 '서'로 보고 삼대원(三大願)은 '원'으로 보았다.

서원은 대승의 이타정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자리이타를 함께 포함하지만 이타에 치중하는 것이 보살도이다.

사무량심(四無量心)이나 사섭법(四攝法)이 보살이 중생을 교화제도 할 때 쓰는 마음이요 방법이다. 사홍서원(四弘誓願)도 마찬가지이다.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사성제(四聖諦)를 염두에 두고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게 하고, 법문을 배우게 하고 불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신해 신행은 성불 위한 중요 수행법

〈信解〉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㉚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견해

불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묘법연화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루(無漏)의 부사의(不思議)한 법은 심심하고 미묘하며, 붓다는 이미 그것을 얻었고, 나만이 이러한 모습을 알며, 시방의 붓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라. 제불의 말은 다르지 않으니 붓다가 말한 법에 대해 마땅히 큰 믿음의 힘을 내야한다."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에서 "괴로움과 죽음에 임해 의지할 바는 오직 관세음이라는 것을 매 순간에 의심치 말라"고 한 것은 수행자가 갖춰야 할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의 서원이나 본원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신해(信解)의 신행은 성불에 도달하기 위한 보살도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苦와 死에 임해서 의지할 바는
오직 '관세음'인 것 매순간 기억

불자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 명확하고, 확고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며, 보살도를 실천해 나가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환언하면 부처님이나 대보살들로부터 종교적 가피를 얻기 위해 수행자가 불보살님에게 귀의하고 그 가피력을 구하는 마음자세와 실천적 태도를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신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증장시킨다.(信爲道元功德母 增長一切善法)"고 하였고, 또한 〈대지도론〉에서도 "불법의 큰 바다는 신(信)으로써 능히 들어갈 수 있고, 지(智)로써 능히 건널 수 있다."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도 "중생들을 위하여 설하는 이 [염불]법문의 [공덕]은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문이다"고 믿음의 공덕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묘법연화경론우파제사(妙法蓮華經論優波提舍)〉에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하는 것은 62억 항하사와 같은 제불의 명호를 수지하는 것과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믿음의 힘(信力)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필경(畢竟)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힘은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구하길 위해 관세음을 필경으로 믿는 것이며, 둘째는 공경심을 내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이와 같은 공덕을 나도 또한 필경으로 얻기 때문이다."고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몸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요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묘법연화경〉 '수기품'에서 설해진 내용은 성불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믿음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이는 곧 부처님께서 항상 기사굴산에 계시어 큰 보살과 여러 성문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함을 믿고 그 말의 참뜻을 이해하여야 비로소 여래의 무상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⑦ 스스로는 환(幻)이 아니다

'상황'은 조건에 의한 것

수행승들이여, '견해의 결박에 묶인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모든 번뇌의 경〉

뭇 삶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태어남,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을 보고 있는 자는, 생각을 아무리 굴리고 굴려도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린다. 마음을 항상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마음을 보고 있으면 생각에서 일어난 이 고통을 벗어나야겠다는 자각과 의지가 생긴다.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는 상황을 벗어나려하는 것과는 다르다. 상황은 괴로움을 종식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이 생각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을 멸(滅)하려고 하는 것이지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다른 상황으로 대체되어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걸, 저렇게 할 걸' 후회를 한다. 바랐던 미래를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을 살지 못한다. 그 뿌리를 바르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우리는 그 회한의 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바르게 봄, 바른 배움은 글자가 아니다. 마음을 끝까지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바름은 무엇에서부터 분별이 일어난 것인지를 가만히 지켜본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생각하는가? 상황이다. 매일 쉼 없이 들이닥치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인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온 것인가? 아니다. 상황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조건에서 왔다가 조건에서 사라진다. 이것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나는 있는가? 나는 없는가?' 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몸과 마음은 환(幻)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의 세상이 아닌 각자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 몸 자체가 조건에서 왔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실체성이 없다.

이렇듯 몸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언가 '있다'고 우리가 느낌으로써 그 조건이 움직여버린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그냥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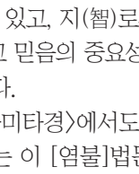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스스로는 환(幻)이 아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아무 마음을 내지 않는 자이다.

이것과 같이 있으면서
이것과 같이 손뼉 칠 수 없는 것, 참 즐거운 일.
이것은 항상 나와 손뼉을 치려고 한다.
맞추면 맞춰서 탈이 나고
맞추지 않으면 맞추지 않아서 탈이 난다.
부처가 와도 조사가 와도 맞추어줄 손이 없다.
빈둥빈둥 홀로 먼 산만 바라보다가 홀로 꼬르륵 거린다.
텅 비어 꼬르륵 거리는 소리 참설법이다.
보는 것에 내가 보는 것이 없는 봄을 보고,
듣는 것에 내가 듣는 것이 없는 들음을 듣는다면,
그때 그 소리, 그때 그 모양
누구의 소리고 누구의 모양인지를 즉(卽)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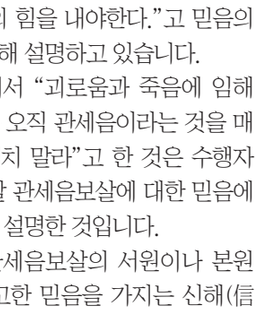
〈(사)여시아문 선원장〉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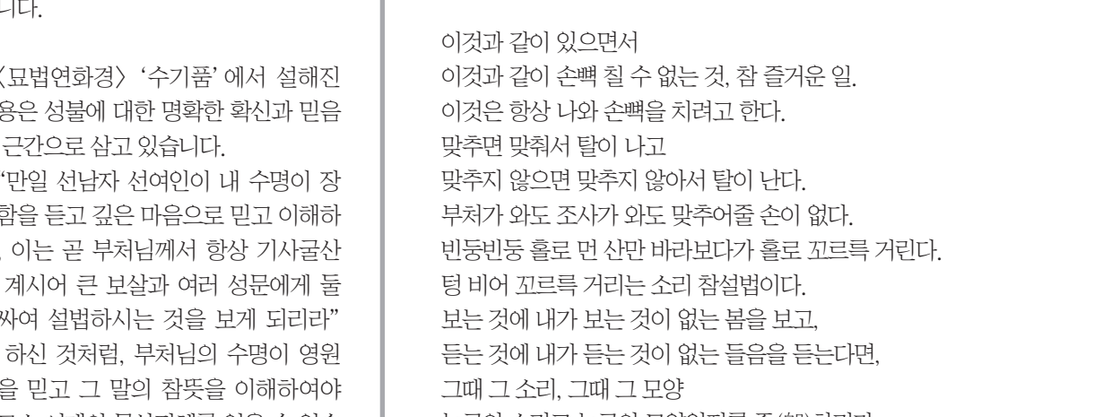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국내최초·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